

김제시, 서울장학숙 내년초 본격 운영

지역출신 재경 대학생 면학 지원

김제 서울장학숙이 사업 시작 3년 만에 서울시 동대문구에 동지를 틀게 됐다.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박준배)은 지역출신 재경 대학생들의 면학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장학숙이 빠르면 내년 초부터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장학숙은 서울시 동대문구 회계동 회기역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 건물로 33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1467㎡ 규모며, 1인 1실로 사용 가능한 방이 60개로 되어 있다.

특히 인근 지역에 주요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고, 회기역에서 5분거리, 10



김제시 서울장학숙 대상건물 매입

m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는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기존 세입자들과 명도이전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북 김제=봉채영 기자

안성시, 붉은 수돗물 사태 사전 차단한다

50억 투입,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

안성시는 최근 불거진 인천시와 서울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주민 불신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해 공도읍과 대덕면 일대의 국도38호선에 매설된 주관로의 노후관 개량을 추진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구간은 공도읍구시가지 일원과 대덕면 내리, 신령리, 소내리, 무능리 일원에 공급하는 주관로는 관경 450mm 강관으로 1994년 매설되어 적수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상수관로이다.

사업구간은 공도읍가압장에서 대덕배수지까지 전체 7.76km중 교체나 이설

등으로 일부 개량된 구간을 제외한 5.72km이다.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확포장공사로 인해 시행청인 서울청과 협의를 통한 과정이 필요한 구간(공도 퍼시스~대덕 내리사거리)이 포함되어 있어 2023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관 개량과 함께,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도 투입 비용을 높여, 유수율 제고와 관로 사고 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이보현 기자 bhlee7777@

군산시, 경력단절 여성 종합지원 나서

상담·훈련·관리까지 원스톱 지원

군산시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산시는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상담, 직업훈련, 취업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취업상담사 6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취·창업

연계, 동행면접 등 찾아가는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해 올 상반기에 735명의 취업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체를 대상으로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교육(7회), 여성친화 기업 환경개선 사업(3개소)을 지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예방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전북 군산=봉채영 기자

인천시, 2만2000㎡ 곡물창고 리모델링

창고를 창업·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내항8부두 내 폐 창고 재활용 내부 영화관·집객시설 등 구성 외부 시민 편의·휴식 공간 활용

인천시가 개항창조도시 앵커사업으로 31일 인천 내항8부두 내 폐 창고를 재활용해 상상플랫폼으로 재창조하기 위한 첫삽을 뜨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8부두 연면적 2만2000㎡ 부지에 위치한 곡물창고를 활용해 4층 규모의 창업지원 및 문화공연 전시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개발 실시계획 승인됨에 따라 마칩내 진행된다.

2016년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되면서 시작된 사업은 재정의 선제적 투입과 초기에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사업으로서, 국비 123억원, 시비 273억원, 민간투자 300억원 등 총 696억원 규

모로 2020년 6월까지 추진된다.

시는 2018년 2월부터 상상플랫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운영사업자 선정, 부지조성(리모델링)설계를 거쳐 사업계획(구역) 변경 및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에는 지형 및 분할측량 결과 나타난 면적증가분(증126.1㎡) 반영과 항만기능 상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항만시설, 24,029.1㎡) 제외, 창업지원 및 첨단아이씨티(ICT) 체험시설 등 복합기능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이 반영됐다.

또한, 2018년부터 운영한 사업추진 협의회를 거쳐 나온 공적공간 시설구성안을 채용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부지조성(리모델링) 계획안을 확정했으며, 관련 인허가 의제 협의과정에서 중앙부처, 인천시 및 중구청 관련부서,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제시한 협의의견을 검토해 교통, 경관, 도시계획 내용을 보

완했다.

이로써 상상플랫폼은 내부에는 영화관, 엔터테인먼트센터(VR, AR 체험시설, 디지털 아쿠아리움 등), 에프앤비(F&B) 등 집객시설과 인천시민 누구나 체험 가능한 공공기능의 도서관, 창업지원시설(메이커스페이스), 인천항의 역사를 담아낼 홍보관, 노년층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 게임존 등을 갖추 예정이며, 건물외부에는 천장에서 내항을 바라보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3층 높이) 스탠드와 야간조명이 설치되어 시민의 접근 편의와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게 만들어 진다.

앞으로 건축허가와 공사발주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착공, 2020년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된다. 이렇게 되면 항만물류창고로 활용됐던 항만시설이 지역경제와 문화가 연계된 개항장 원도심의 중추시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인천=최영주기자 choiyj@metroseoul.co.kr



맨손으로 은어 잡는 관광객들

지난 7월 31일 경북 봉화군 내성천일원에서 열린 제21회 봉화은어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맨손잡이 체험을 즐기고 있다. 제21회 봉화은어축제는 오는 8월4일까지 열린다. /뉴스

전남도, 2020년 '농어민 공익수당' 첫 도입

농어업 공익적가치 인정 첫 사례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전라남도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이전부터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어업인 중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가 24만 3122명이다.

이 가운데 농어업의 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농어민을 비롯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제외해 지급 대상 선정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농어촌이 직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을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추진해왔던 규모화·기계화·현대화 위주의 농업정책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하고 농어촌의 빈곤층을 더욱 가속화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지방 차원에서 공익수당을 도입, 이를 해소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정책을 선도해 향후 국가정책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봉채영 기자 bcy2020@

인천공항,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 실시

실내 주차 원하는 여객 수요 반영

8월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여객들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을 인천공항 실내 주차장에 보관하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들의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해 8월 1일부터 인천

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하루 100대까지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사는 향후 타당성 분석 및 여객수요를 반영해 제1터미널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는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을 인천공항 실내 단기주차장에 보관하는 대신 주차대행 요금(2만원)과 단기주차장 주차요금(2만4000원/일)을 받는다.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요금을 일부 더 지불하더라도 기상환경에 상관없이 차량을 실내에 주차하기를 원하는 여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주차대행 접수 후 차량을 실내에 보관하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오늘의 날씨

8월 1일 (木)
음력: 7월 1일

수도권 날씨
30~25°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35 | 해질 / 19:4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